‘신흥사·불국사’ 관련 총무원 행정력 질책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종책질의서 문제제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신흥사-경내지 미승인 임대 논란
불국사-주지직무대행 6차례 품신
의원스님들 “총무원 미온적 태도”
통계청 인구조사·선암사 패소 등
각종 현안으로 6시간 동안 질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밑바탕인 종헌개정안은 중앙종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지만, 이와 반대로 총무원의 행정력을 질책하는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일부 교구본사주지 임명 과정에서 총무원과 교구본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종헌종법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3월 20일 오전 속개한 제230회 임시회에서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을 마치고, 각 부서별 종책질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면으로만 총 28개의 종책질의가 접수됐는데, 총무부에 관한 내용만 8개로 가장 많았다. 총무부는 구두 질의까지 합쳐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종회의원 스님들의 질책을 받아야 했다.

총무부 종책질의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한 건 총무원의 인사행정 지적이었다. 보화 스님은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임명과 관련해 신흥사 경내지 미승인 임대 건을 언급하며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을 적용하면 본사주지에 임명할 수 없는데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사실상 상위법령인 종무원법과 산중총회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기에 결격사유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종무행정에 일대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고 해명했다.

상위법에서 경내지 미승인 임대를 본사주지의 결격사유로 명문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법인 종령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보화 스님은 “종무원법이나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을 제정한 건 삼보정재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망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로 볼 때 절대 적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다수의 종회의원들이 총무부를 비롯한 각 부서의 준법정신이 결여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신흥사뿐만 아니라 불국사의 반복된 주지직무대행 품신도 도마에 올랐다. 주지직무대행 임명은 차기주지 선출을 위한 3개월간의 임시직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이 6차례나 반복해 직무대행을 임명했다는 지적이다.

진화 스님은 “불국사 주지직무대행만 6차례에 벌써 15개월째다. 최근에 임명할 때 산중총회를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걸 제대로 확인한 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화 스님은 “관련 규정을 바꾸기 위해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의견을 구했지만 특정 본사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적절치 않다는 답을 받았다”며 “직무대행은 주지후보를 뽑지 못했을 때 임명하는 것으로 해석해 앞으로는 1회만 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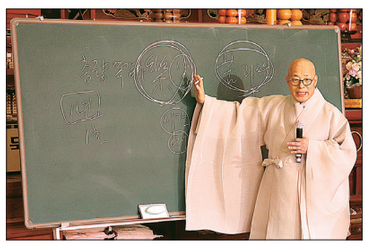
“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을 악의적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밝힌 선광 스님은 “교구본사 내규가 종헌이나 종법보다 앞설 순 없다. 종헌종법보다 교구 관습법을 먼저 인정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회의원스님들은 이뿐만 아니라 총무부에 선학원 관계, 송담 스님의 탈종 문제, 선암사 소송 대응, 통계청 인구센서스 대비 등 다양한 현안을 질의하고 총무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후 각 부서별 종책질의가 오후 6시까지 이어졌으며, 기획실에는 징계자에 대한 ‘사면 조치’ 검토 주문이 나왔다.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검토한 적은 없지만 총무원장스님께 보고 드리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명상 일타강사’ 변신한 진우 스님

출가재일 선명상 주제 법문…“명상으로 업장소멸”

법상 대신 칠판 판서하며 열강
전법 위한 선명상 중요성 강조



“선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삼업청정을 이루고, 고락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업장소멸을 이루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3월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출가·열반재일 특별정진주간을 맞아 사부대중에게 정진을 당부하고 선명상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평소와 달리 가사를 수하지 않고 사자좌에도 오르지 않았다. 대중 앞에 선 진우 스님은 열정적인 모습으로 직접 판서강의를 진행하며 이해를 도왔다.

진우 스님은 전법에 있어 명상의 중요성과 보급의 필요성을 짚었다. 스님은 이어 명상을 잘 하기 위해 먼저 인과법과 연기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와 결과 없는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좋은 것이 생기면 반드시 나쁜 것도 생기기 마련”이라며 즐거움과 괴로움은 인과에 따라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인드라망처럼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때문에 모든 인과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며 “필연적인 인과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과법과 연기법에 따라 나타나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단지 현상 그 자체일 뿐이라는 진우 스님. 하지만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제각기 다른 감정을 느낀다. 진우 스님은 여기서 ‘감정’에 주목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든 현상은 환영의 일부이자 물거품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바로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좋고 싫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현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하나 시비를 따지고 본다”며 “이러한 감정 때문에 중생은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업장소멸하지 못한 채 윤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고락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명상 수행임을 강조했다. 명상을 통해 감정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잡념을 버림으로써 삼독을 제거해야 업장소멸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스님은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외부의 현상은 그저 인연에 맡겨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비구니·우바이, ‘수행정신 회복’ 운동 펼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3월 18일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출범
광용 스님 “지금은 수행 시대”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출범식에서 위빠사나 명상을 수행하는 스님과 불자들.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쌈 붓다싸.”(모든 번뇌를 떠나서 스스로의 지혜로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으신 거룩한 부처님께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예경 올립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3월 18일 서울 법룡사 만불전에서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출범식’을 봉행하고 청정승가공동체 결사의 주인공으로서 함께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비구니스님과 재가여성불자들이 함께하는 이번 수행결사는 비구니 승가 위상을 높이고 여성불자들에게는 새로운 수행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출범식에서 “지금은 수행시대”라고 강조한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귀한 수행자로서 혼탁한 세상을 맑히고 공생을 위한 마음을 내 자기 치유와 돌봄, 내면 정화가 필요한 현대사회에 수행결사의 의미와 가치를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구니스님과 여성불자들이 함께하는 수행결사는 첫 시도인 만큼 많은 가능성과 동시에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면서 “그만큼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수행을 위해 감내해야 할 부분을 나눠 마지막까지 함께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은 대표 낭독한 수행 결사문에서 △출가수행자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경전을 독송하고 수행정진 할 것 △청정승가공동체 순수성 보호를 위해 진실한 수행으로 세상을 맑히는 붓다의 제자 될 것 △수행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청정승가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한다는 자긍심과 수행가풍을 회복하기 위해 수행청규를 만들어 각자의 처소에서도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출범식 후에는 법사스님인 범라 스님과 함께하는 위빠사나 명상 수행이 이어졌다. 범라 스님은 태국 촌부리 위백아솜 위빠사나 수행센터 창마이 왓람뻥에서 수행했으며 이후 10년 동안 미얀마 양곤 마하시센터에서 지낸 위빠사나 명상 수행 전문가다. 이날 ‘정견’을 강조한 범라 스님은 “수행하는 방법을 바르고 정확하게 배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위빠사나 수행에 이어 간화선, 법문과 실참, 명상 수업 등으로 4년간 이어진다. 조계종 비구니스님, 조계종 단체 및 소속사찰 여성불자 누구나 신청 가능. 02-3411-8103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5교구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임명

진우 스님 “대중 화합” 당부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에 정덕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덕 스님에게 법주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정덕 스님은 3월 8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주지 후보자로 당선된 바 있다.

진우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한 뒤 정덕 스님에게 “정정당당히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본사에서 소임도 그동안 충실히 해왔다. 앞으로 교구장 소임도 잘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조실스님을 비롯해 어른스님들을 잘 봉양하고 대중화합에 중점을 둬 가람수호와 포교발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덕 스님은 “총무원장스님 뜻을 잘 받들어 5교구가 힘을 보태겠다. 교구 대중을 잘 모시겠다”고 답했다. 스님은 또 종단 핵심 종책사업인 ‘천년을세우다’에 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윤호섭 기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추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사용전후 체온변화 사용 전 사용 후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개를 벨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